

불황으로 발행종수·부수 감소 추세

출협 집계 '96 출판통계 ... 역사관련서·만화출판 성장세 두드러져

1996년 출판통계

96년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출판업계가 나름대로 불황을 타개하고 출판의 영역을 넓히고자 애쓴 한 해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출간된 신간도서의 발행량은 2만 6664종, 1억 5813만 6723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발행종수는 2.7%가 감소한 반면, 발행부수는 9.6%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부수가 늘었다고 해도 초등학교 교과서 납본이 새로이 포함된 결과라 실지로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 95년도에 비하면 비교적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거나 소폭의 증가에 머물러 출판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반증한다. 96년 출판 통계상 특기할 만한 것은 만화출판과 역사서의 성장세이다. 한편 평균정가도 1만원대에 들어섰으며, 번역도서는 감소추세임이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종수 감소 보여

성장세를 볼 수 있는 것은 만화(19%), 사회과학(10.1%), 기술과학(6.8%), 총류(2.5%), 철학(0.6%)의 4분야 뿐이고, 이를 제외한 8개분야의 종수가 줄어들었다. 만화출판의 두드러진 강세는 영상과 기호, 상징에 탐닉하는 현대사회의 세태를 반영한다. 가장 침체되었던 분야는 순수과학(25.7%), 학습참고(12.4%), 문학(7.5%)순으로 출판의 질적 향상은 점수가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발행부수 역시 총계는 증가했으나 대다수

분야는 감소하는 추세다. 총류 발행부수가 57%나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아동(42.2%), 순수과학(38.9%), 학습참고(7.7%) 순으로 발행량이 줄었다. 그럼에도 전체 발행부수가 증가한 것은 사회과학 발행부수가 555.1%나 증가한 것에 힘입었는데, 이는 그동안 납본되지 않던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회과학분야 납본통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대중적인 척도라 할 수 있는 문학도서의 감소도 눈여겨 볼 만하다. 총 4411종이 발간된 문학도서는 전년도(4771종)보다 7.5%가 감소했다. 장르별로는 소설이 2703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2973)에 비해서는 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평론이 43종으로 전년의 18종에 비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의 인문교양서 유행을 반영하기도 한다. '인문교양서의 부흥'이라 할 정도로 활발했던 고고학, 문화인류학, 상식사 등 역사관련서 부수는 19.9% 증가하여 다시 한번 그 붐을 확인케 한다. 어학은 종수가 줄어든 반면 부수가 18.8% 성장하여 몇몇 인기도서의 집중적 수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출판계의 특기할 만한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만화출판(5592종)이다. 전체 신간도서의 17.3%를 점유하여 문학분야(13.7%)를 앞질렀다. 종수로는 전년 대비 19%가 늘었고 부수는 365.3%(1802만 1725부)나 증가했다. 만화시장의 잠재력에 눈돌리기 시작한 출판계가 '단행본 만화' 시

■단위:종,부,원,%

■기간:1996.1.1-12.31

	신간발행종수			신간발행부수			평균 발행부수		평균 정가		평균 면수	
	1996	1995	증감률	1996	1995	증감률	1996	1995	1996	1995	1996	1995
총 류	359	350	2.5	874.292	2,037.320	▲57.0	2,435	5,820	13,238	10,095	306	277
철 학	722	717	0.6	3,442.341	3,189.310	7.9	4,767	4,448	8,338	7,450	270	259
종 교	1,718	1,834	▲6.3	4,997.359	5,205.848	▲4.0	2,908	2,838	6,964	5,482	282	269
사회과학	3,856	3,502	10.1	36,325.378	5,544.344	555.1	9,420	1,583	14,990	14,050	437	440
순수과학	387	521	▲25.7	596.510	976.390	▲38.9	1,541	1,874	16,710	14,387	382	314
기술과학	3,373	3,155	6.8	4,647.828	4,473.317	3.9	1,377	1,417	14,114	14,073	400	389
예 술	1,094	1,107	▲1.1	2,387.565	2,433.280	▲1.8	2,182	2,198	11,383	12,105	196	196
어 학	1,567	1,624	▲4.1	6,917.740	5,818.339	18.8	4,442	3,582	10,906	11,192	270	241
문 학	4,411	4,771	▲7.5	11,911.706	12,724.092	▲6.3	2,700	2,666	6,084	5,816	280	288
역 사	945	972	▲2.7	2,168.808	1,808.499	19.9	2,295	1,860	14,448	9,488	373	349
학습참고	4,107	4,691	▲12.4	69,836.385	75,665.604	▲7.7	17,004	16,129	9,693	8,057	165	149
아 동	4,135	4,163	▲0.6	14,030.811	24,307.264	▲42.2	3,393	5,838	7,531	8,210	89	98
계	26,664	27,407	▲2.7	158,136.723	144,183.607	9.6	5,930	5,260	10,332	9,507	272	260

(▲:감소표시) 자료:대한출판문화협회

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지난해 책 한권의 평균발행부수는 5930부로 전년도에 비해 670권이 늘었다.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학습참고서. 초등학교 교과서 납본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가 두번째다. 그밖에 철학, 어학 등의 분야가 평균 4천부를 넘었으며 기술과학은 평균 1377부, 순수과학이 평균 1541로 전문서적은 평균 2천부를 넘지 못했다. 판매율이 천차만별인 문학은 평균 2700부가 발행되었다. 문학도서의 발행량이 적은 것은 초판을 기준으로 집계한 까닭이다.

저작권 시행 여파로 번역서 줄어

책값은 한권당 드디어 평균 1만원(1만 332원)대를 넘어섰다. 전년도 9507원보다 8.6%가 상승한 책값은 인쇄비와 종이값 등 제작비와 인건비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책값이 가장 비싼 분야는 평균 발행부수가 적은 순수과학으로 1만 6710원

꼴. 책의 두께는 평균 272면으로 전년도(260면)에 비해 4.6% 늘었다. 면수가 많은 분야는 사회과학(평균 437면), 가장 얇은 아동도서의 평균 면수는 89면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번역도서의 감소추세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번역도서의 발행량은 3961종으로 전체 발행종수의 14.8%에 해당하는데 전년도(4335종)보다 8.6%가 감소된 수치다. 지난 92년에 18.3%를 차지했던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번역도서의 감소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번역도서 중 문학분야(1132종)가 여전히 전체 번역량의 23.4%를 차지하며 만화·아동·종교·사회과학 순이다. 미·일 도서의 강세는 여전히 미국(1608종)이 전체의 33.3%로 가장 많았고, 일본(1496종)이 30.9%, 그 나머지가 영국, 독일 순으로 집계되었다.

— 마정미 기자

”

”

짧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짧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TOTAL ILLUSTRATION CO.
포인트라인
일러스트레이션 · 디자인전문회사

POINT-LINE

포인트·라인은 픽처북, 스토리북, 표지일러스트와 카렌다, 카드, 참고서, 교과서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 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토, 모래 그림 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학생 대상의 출판과 아동출판 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